

패션비즈니스 제25권 1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5,
No. 1:150-164, Feb. 2021
[https://doi.org/
10.12940/jfb.2021.25.1.150](https://doi.org/10.12940/jfb.2021.25.1.150)

Corresponding author

Hyejeong Kim
Tel : +82-31-670-5364
Fax : +82-31-670-5369
E-mail : hjkim160@hanmail.net

영화 <시드와 낸시(Sid and Nancy, 1986)>의 영화의상 연구 -펑크스타일을 중심으로-

김예진* · 김혜정†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산업전공,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A Study on the Costumes in the Movie <Sid and Nancy (1986)> -Focused on Punk Style-

Yejin Kim* · Hyejeong Kim†

*Dept. of Clothing Industry, Graduate School of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film Sid and Nancy,
punk style, fetish style,
Sex Pistols, subculture
영화 시드와 낸시, 펑크스타일,
페티시스타일, 섹스 피스톨즈,
하위문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unk style shown in the movie *Sid and Nancy* (1986), based on a true 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at the styles of the main characters had some discriminatory mode as an anti-fashion with not only the value system of the subculture but also the diverse cultural codes applied, revealing their identity. The scope of this study covered the 1970s when Sid died while a member of the Sex Pistols, but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Sid and Nancy's costumes. A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reviewed the preceding studies, specialty books, movie-related sites and their postings, and on-line news reports. To analyze the movie costumes, relevant scenes on the DVD were captured, and thereby, the scenes were categorized per character and style but a performance scene was categorized Sid and Nancy as same punky wedding style because of intention spirituality to marriage by director, and thereupon, 17-cut imag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main characters' styles. Sid's style consisted primarily of black leather jackets, symbolic T-shirts, and jeans, whereas Nancy's style implied a punk style with added fetish styles. Even in the same punk style, their identities were symbolized through bricolage. Through this, subculture styles, were able to confirm that in addition to the value system of subculture, discriminatory modes as anti-fashion with various cultural codes played a role in revealing their identity.

1. 서론

문화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으로 한 사회 속에 하나의 문화만이 아니라 세대, 계층, 취향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사회를 특징짓는 큰 범주의 문화를 주류문화라 부르며, 그 안에 세대, 계층, 취향 등에 따라 구분지어지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하위문화라는 용어는 1940년대 생겨나 1950년대 노동자 계층이었던 청년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의 문화는 대항적 성격을 지녔으며(Lim & Kim, 2003)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펑크(punk)를 이끌어내었다.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된 펑크는 펑크스타일(punk style)로 대변될 수 있으며 그 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그들의 반체제적 패션스타일은 영국의 로커즈(rockers)와 미국의 바이커(biker)의 정신 및 스타일을 계승한 것이었다.

1970년대는 펑크를 비롯하여 히피(hippie)의 잔재와 80년대와 90년대의 글램(glam)이나 그런지(grunge) 등과 같은 하위문화가 발아되는 시점으로 다양한 집단의 기호들이 계승과 통합, 변형되어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내재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진 시기였으며 매스 미디어(mass media)와 같은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뮤지션이나 영화배우와 같은 스타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또는 패션 등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 1970년대 암울했던 영국의 시대적 상황은 젊은이들을 일탈로 이끌었고 기존 기성세대들에 의해 주도된 뮤지션과는 차별성을 갖는 실험적 음악성을 추구한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가 젊은이들에게 시대적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에 의해 계획된 섹스 피스톨즈의 저항적 스타일은 낙오자가 되어버린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986년에 하위문화적 감성을 지닌 알렉스 콕스(Alex Cox) 감독에 의해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와 그의 연인 낸시의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70년대 시대상을 토대로 영화 <시드와 낸시; Sid and Nancy>(1986)에 나타난 영화의상 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펑크와 함께 브리콜라주(bricolage)된 페티시(fetish) 등의 하위문화의 가치체계와 그들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반영된 반 패션으로서의 하위문화 스타일을 파악하고 영화 속 복식이 그들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적 감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가치 체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펑크스타일의 선행연구로는 펑크스타일의 미적특성에 대한 연구(Chung & Yang, 1999; Hwang, 2001; Kim, 2002; Yang, 2003)와 현대패션과 펑크스타일을 다룬 연구(Kwon, 2015; Kim, 2015, Lee, 1997; Park, 2010; Yim, 2003) 등이 있으며 주로 시대상을 통해 펑크스타일의 미적 특성이나 펑크스타일이 패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 또는 당대 컬렉션에 드러난 펑크스타일에 대해 고찰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화를 대상으로 한 펑크와 그 스타일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영화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대극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상과 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어(Kim & Park, 2008) 복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시대극과는 달리 주인공이 사후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알렉스 콕스 감독이 주인공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직, 간접적으로 관조하여 영화 속에 그들의 삶을 투영해냄으로써 보다 실제적으로 펑크와 그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 속 주인공인 시드와 낸시의 스타일이 하위문화의 가치체계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코드가 적용된 안티패션으로서의 차별적 모드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으며 영화 속 복식이 의도한 극 중 캐릭터를 창출하는 미장센(mise-en-scène)으로 존재하여 영화의 성격과 장르를 구분짓는 한 요소가 됨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주인공 시드가 섹스 피스톨즈로 활동하고 생을 마감한 1970년대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영화와 영화의상에 대한 정의와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스타일로서 펑크와 펑크스타일, 페티시와 페티시스타일의 정의 및 고찰을 위해 선행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을 참고하였으며 필모그래피로서 영화감독의 백 그라운드 및 영화의 목록, 줄거리 등과 영화의 주인공 밴드이자 펑크 록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에 대한 고찰은 다양한 참고문헌 및 영화와 음악관련 전문사이트의 포스팅 그리고 온라인 기사들을 참고하였다.

영화의상 분석에 있어서는 DVD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에 따라 각 스타일 별로 영화의상을 분석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제시한 총 17장의 이미지는 필요에 따라 부분 캡처하여 상반신 위주의 이미지는 상징적 의미를, 전신 샷 이미지는 전체적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시드의 퍼포먼스 신(scene)과 낸시의 관람 신은 감독이 시드와 낸시의 결합으로서 영원성을 부여한 장면이라 파악하여 그 스타일을 핑크적 웨딩스타일로 규정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함께 분석하였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영화의상’을 캐릭터의 외형을 구성하는 복식의 개념 외에도 배우의 이미지와 행동양식을 포함하여 창조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복식, 영화의상, 또는 패션스타일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문화 구성원들이 채택한 복식을 하위문화 스타일로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II. 영화의상의 정의 및 영화 <시드와 낸시>의 필모그래피

1. 영화 및 영화의상의 정의

영화는 현실을 담아내는 공간 예술이자 음악이나 미술, 문예 등의 예술과 관련하며 과학이나 기술적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종합예술로서 기존의 예술과는 구분되어 제 7 예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또한 영화는 시대의 가치, 신념, 규범 외에도 취향문화라는 대중문화를 생산,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Kim & Park, 2008).

이러한 영화의 특성과 맞닿은 영화 속 복식은 영화의 핵심으로 배우의 외형적 모습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영화 속에서 특정한 캐릭터 혹은 특정한 상황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패션디자이너와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Costume designer,” n.d.; David & Landis, 2014). 특히 의상감독인 최미연은 “의상은 연기에 생명력과 살을 보태주는 역할과 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할 때 그 캐릭터가 될 수 있는 도구”라 하였다(Choi, 2016, para. 4).

이에 따라 ‘영화의상’은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의상과는 달리 정의된다. 이는 니콜 베드레의 영화의상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 유리 로프만의 영화의상은 특정시대의 기호로 변환된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복식뿐 아니라 연기자의 표정, 동작까지를 포함한 행동양식을 영화의상의 범주로 보았다(Kim & Park, 2008). 또한 영화에 있어서 의상은 캐릭터의 성격을 구분 짓고 영화 속 공간을 미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Kim & Lee, 2009). 이에 따라 ‘영화의상’이라는 외적으로 연출되는 모든 것을 일컫는 것으로 도상성(iconicity)으로서 스크린 속에 표현되는 배우의 라이프스타일, 플롯이나 시퀀스의 상황, 장르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를 유행의 관점에서 보면 패션트렌드의 생성과 모드를 창조해내는 실용 예술의 산실로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문화적 코드가 적용된 패션을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영화 속 캐릭터 또는 스타들을 따라서 하려는 모방심리는 신드롬 현상인 스타일 따라잡기 등의 행동양식을 이끌어내 스타마케팅 등과 같은 또 다른 패션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영화 <시드와 낸시>의 필모그래피와 섹스 피스톨즈

영화 <시드와 낸시>의 감독 알렉스 콕스는 1954년 영국 리버풀 출생으로 옥스퍼드대에서 법률과 미국 UCLA에서 영화 전공 연출 수업을 받았다(Alex Cox, 2009). 그는 언더그라운드 하위문화적 감성과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주제의 식으로 드러낸 컬트(cult)영화 감독으로 대중보다는 일부 평론가와 마니아층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첫 작품 <리포맨: Repo Man>(1984)으로 핑크족 청년을 그려냈으며(Alex Cox, n.d.). 두 번째 작품 또한 핑크족의 삶을 그린 <시드와 낸시>로 상파울로 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기도 하였다.

영화 <시드와 낸시>는 섹스 피스톨즈의 밴드 멤버인 시드와 그의 연인 낸시의 실화를 재현한 것으로 ‘섹스 피스톨즈’는 뉴욕 돌스(The New York Dolls)의 매니저였던 말콤 맥라렌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섹스 피스톨즈는 핑크의 기원이 된 ‘벨벳 언더그라운드(The Velvet Underground)’로부터 영향을 받았다(Starr, Waterman, 2010/2015). 날카로운 소음, 쓸쓸하고 우울한 목소리, 퇴폐적이며 난해한 가사를 도입한 거친 사운드를 가진 록(rock)을 통해 고통, 소외, 좌절 등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또한 암울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과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God save the Queen’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국 왕실과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노골적인 비아냥(Im, n.d.)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미움을 샀으며, 1977년 ‘퀸 엘리자베스’ 호를 타고 영국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템즈 강 위에서 ‘Anarchy In The UK’를 부르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Kim, 2020). 핑크족의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 스타일은 테디보이스타일(teddy boy style)과 로커스타일(rockers style), 아프리카 패션을 선보였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의해 연출되어(Buxbaum, 2005/2009) 대표적 핑크스타일이 되었다. 그들은 말콤 맥라렌의 가게를 털다 걸린 줌도둑, 인간쓰레기, 마약쟁이, 깡패들(Kim, 2020)이었으며 초창기에는 자니 로튼(Johnny Rotten/보컬)을 중심으로 스티브 존스(Steve Jones/기타), 폴 쿡(Paul Cook/드럼), 글렌

매트록(Glen Matlock/베이스)으로 결성되었으나 베이스를 맡았던 글렌 매트록(Glen Matlock)의 탈퇴로 핑크의 아이콘인 시드가 영입되었다(Kim, 2020). 시드는 히피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접하였고 낸시 또한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었으며 10대 초반부터 마약을 시작해 집에서 쫓겨나 마약을 사기 위해 매춘부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시드 역의 게리 올드만(Gary Oldman)은 1987년 Evening Standard British Film Awards에서 신인상을, 낸시 역의 클로에 웹(Chloe Webb)은 같은 해 Boston Society of Film Critics Awards와 National Society of Film Critics Awards, USA에서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하였다. 영화의 스타일을 담당했던 피터 프램톤(Peter Frampton)은 1987년 BAFTA Award에서 베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Sid and Nancy Awards," n.d.).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시드와 낸시는 첫 만남 이후 마약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천방지축 막무가내인 낸시로 인해 시드의 밴드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시드마저 점점 마약에 빠져 들어가고 자해까지 하게 된 상황은 결국 섹스 피스톨즈를 해체하게 만든다. 낸시가 매니저를 자처하여 음악적으로 재기하고자 하였지만 그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갈에 찢린 채 발견된 낸시로 인해 살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시드는 낸시의 환영과 재회 한다.

III.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스타일의 정의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의 형성과 빠른 보급을 통해 더 이상 문화의 주체가 귀족이나 엘리트층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토록 하였다. 예술, 문화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이 발아, 전개되면서 대항문화, 특이문화로 특징짓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청년기를 맞이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여 하위문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하위문화는 청년문화 혹은 기성세대에 반한다하여 저항문화라고도 불리었다. 하위문화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위의, 종속의 또는 지하의' 뜻으로, 주류사회와 구별된다(Chung & Yang, 1999). 주변화 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당한 것으로 동시대와는 다른 이질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Lim & Kim, 2003).

청년이자 노동자 계층이었던 젊은이의 문화는 1950년대 이후부터 대중음악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Um,

1995) 펑크나 글램 같이 음악 장르의 명칭이 하위문화 집단의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같은 음악을 즐겨듣는 것과 같은 취미를 통해 결속력을 다졌다. 하위문화 집단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상징적으로 혹은 고스란히 스타일에 담아내 비언어적 표현을 하였으며 그 스타일은 그들을 구분 짓는 표본이 되기도 하였다.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뮤지션이나 영화배우와 같은 스타들을 우상으로 여겼으며 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패션과 생활양식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 대중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쳐 특정 하위문화 집단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스타들의 이미지 메이킹에 하위문화와 그 스타일이 활용되어 하위문화적 의미를 상실한 채 대중적인 스타일로 흡수되기도 하였다.

1. 펑크와 펑크스타일

1970년대 영국 경제는 노동당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실업률이 20%(Im, n.d.)에 달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이들에게 전해졌다. 펑크족은 기존 고도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있어 야만 연주할 수 있던 록 음악을 부정하여 쉽고 단순한 코드와 당시 암울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가사를 결합시켜 새로운 록을 선보였는데 이는 펑크록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는 당시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으며 자신들의 저항적 문화코드와 일치한 펑크록 뮤지션들의 스타일은 영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다. 그들은 법률, 도덕, 체제, 규율, 규칙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문양 등을 사용하여 기존체제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anarchism)를 드러냈다. 이러한 그들의 반체제적 패션스타일은 영국의 로키스와 미국의 바이커의 정신 및 스타일의 계승에서 비롯되었다. 그 외에도 히피, 페티시 등의 다양한 집단의 기호들이 계승과 통합, 변형되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문화적 산물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확산, 파급될 수 있었다.

'겹쟁이', '꽃내기', '불량', '매춘부'라는 뜻의 속어로 음악 용어인 '펑키(funky)'에서 유래된 펑크는 기존 모든 체제와 질서의 부정과 조롱은 물론 자신들 이외의 모든 하위문화를 부정한 유일한 하위문화 집단이었다. 또한 무정부주의를 넘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니체주의 등 보다 일관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Lee, Lee, Lee, & Jin, 2002).

펑크족은 기존 모든 체제와 질서를 부정하는 이념과 맞물려 기본 패션을 거부하고 'Do it Yourself' 라는 슬로건을

통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의 아이템을 수용한 펑크족은 옷을 일부러 구멍 내거나 찢고 머리를 밀거나 모히칸 헤어. 혹은 스파이크 헤어를 하였으며 짙고 부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신체 부위를 피어싱을 하는 등 기괴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훼손시켰으며 지퍼와 사슬, 안전핀과 클립, 배지 등을 액세서리로 활용해 기존의 패션스타일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내면을 표출하였다.

펑크스타일은 1950년대 바이커스타일과 1960년대 로커스타일을 계승하여 그들의 스타일을 새롭게 창조해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제 막 미국으로 귀국해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한 군인집단인 바이커족은 표준적인 삶을 거부하고 사회를 조롱하며 위협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바이크를 타며 낡고 상처를 낸 블랙 레더 재킷에 스타드(stud), 체인, 여러 줄의 금속 리벳을 장식하였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장 및 상징을 그래피티와 배지들을 통해 표현했다. 블랙 레더 재킷은 본래 군대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이었으며 1953년 영화 <더 와일드 원: The Wild One>(1953)으로 인해(Yang, 2003) 바이커스타일이 반항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영국의 로커족으로 계승되었다. 그들은 검정 가죽 재킷과 요란하고 도전적인 장식과 함께 군인이나 경찰들의 지위체계를 상징하는 에폴렛(epaulette)에 스타드를 달아 세대 간의 위계질서와 기존체제를 조롱하였으며 강철 헬멧을 쓰고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인 베르마흐트(Wehrmacht)의 표식과 메달을 착용하였다(Buxbaum, 2005/2009).

또한 세계주의, 다문화주의 평화를 지지하였던 히피들은 1970년대 들어 독일의 연방국방군(bundeswehr)의 파카를 다시 유행시켜(Buxbaum, 2005/2009) 펑크스타일에 접목되어 나타났다.

2. 페티시즘과 페티시스타일

페티시는 포르투갈어 ‘페이티수(feitico)’에서 유래하였으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페티시즘은 주물숭배를 의미하기도 하나 주로 성적 도착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Steele, 1997). 페티시스타일은 성도착적 성향을 가진 소수를 위한 하위문화 스타일로서 스킨 투(skin two)와 같은 영국의 유명 SM클럽이나 사적 공간에서 입던 것으로 주로 은밀하게 구입한 고무와 가죽 등으로 만들어져 착용되었다(Tucker & Kingswell, 2000/2003).

1970년대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n개의 성’이나 교차성 등의 개념을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성 문제에 접근하였다(Chung & Chung, 1997; Korean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2006). 패션에 있어서는 하위문화 스타일이 하이패션에 도입되는 상향전파와 함께 사회가 감추고 부정하고자 하였던 페티시즘(fetishism)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였다. 페티시스타일은 성적 도착현상의 의미 외에도 성도착적 행태를 표방하는 하위문화 집단의 스타일로 성에 대한 각기 다른 다양한 관념을 가진 펑크주의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으며 성의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요인은 파괴적 행위의 외적표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캐치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말콤 맥라렌은 ‘Sex’ 부딪기를 통해 페티시스타일을 하이패션으로 끌어올려 펑크적 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며 펑크스타일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남성이 스타킹이나 스커트 등 여성의류를 입는 등 성도착자의 흉내를 내어(Lee, Kim, Sin, Lee, & Jung, 2006) 성적인 면을 강조하고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페티시스타일에 저급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펑크스타일을 접목시켜 기성문화에 대한 적대감과 반발을 패션으로써 표출하였다.

특히 속옷으로 착장하였던 코르셋, 스타킹, 가터벨트 등의 언더웨어와 인조가죽, 고무(rubber),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의상들을 길쭉한 한 퍼브스(perves)는 개인의 페티시 성향을 강조한 상품화된 페티시스타일로 나이트 클럽과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다(Steele, 1997). 이러한 다양한 하위문화적 요소들이 접목된 펑크스타일은 당시 지식인이었던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의해 섹스 피스톨스 밴드 멤버들에게 그들만의 스타일로 선보일 수 있었다.

IV. 영화 <시드와 낸시(1986)>에 나타난 영화의상

1. 197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 및 복식의 경향

1970년대는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가 하나의 미덕이었던 1960년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게 되었다. 냉전체제로 불안정했던 세계정세는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과 소련 방문, 1973년 마쇼 정상회담, 1977년 중국의 등소평의 개혁 정치 추진(Lee et al., 2002)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아 갔고, 1964년부터 이어져 왔던 베트남전쟁은 약 10년간의 참혹한 여정 끝에 1975년에 막을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여성해방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높은 학력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성을 떠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1976년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최초로 여생도의 입학을 허가하기도 하였다(Tucker & Kingswell, 2000/2003).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스포츠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대중문화와 패션의 주체가 된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공존하여 개성이 중요시되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절충주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티셔츠, 진(jean), 스웨터와 같은 편안한 캐주얼 룩과 함께 저렴한 옷을 겹쳐 입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레어드룩이 일반화 되었으며 피트니스나 에어로빅 등이 유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운동복이 일상생활에서도 입혀지기 시작하여 복장의 구분이 허물어졌다.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성의 경계를 허무는 유니섹스 스타일(unisex style)은 여성패션에 남성패션이 도입되는 형태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발, 부츠, 시스루룩, 다양한 액세서리와 같은 여성패션이 남성패션에 도입되었다. 진은 노동자 계층에게 처음 입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비번기간에 미국 군인들에 의해 입혀지기 시작하여(Tucker & Kingswell, 2000/2003) 바이커 시대를 기점으로 블랙 레더 재킷과 함께 반항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반항적인 청년들을 사로잡아 유럽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되고 1970년대에는 상징적인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와 함께 입는 경우가 많았다(Kim, Choi, Kim, Ha, & Choi, 2010). 또한 1977년에 개봉한 '토요일 밤의 열기(Saturday Day Fever)'의 흥행으로 쓰리피스의 디스코 룩이 대중적으로 유행하였다. 마라 포셋 메이저(Marrah Fawcett Majors)의 굵은 파마로 층을 낸 헤어스타일은 여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하였다(Tucker & Kingswell, 2000/2003).

2. 영화 <시드와 낸시(1986)>에 나타난 영화의상 분석

1) 시드의 영화의상과 스타일링

영화 속 시드는 일관되게 스파이크 헤어와 핑크스타일로서 주로 블랙 레더 재킷(black leather jacket)과 상징적인 프린팅이나 슬로건이 적혀있는 티셔츠와 블루 계열이나 블랙의 스키니 진 혹은 디스트로이드 진(destroyed jean)을 매치하였다. 감독 알렉스 콕스는 시드의 실제 복식들을 참고하여

영화의상으로 재현하려 노력하였다. 그는 특정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 한정된 패션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등장하는데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사건들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드러난다. 실제인물인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는 블랙 레더 재킷을 좋아하고 즐겨 입었으며 극 속 시드의 블랙 레더 재킷은 시드를 상징하고 있다. 블랙 레더 재킷의 장식은 낸시를 만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장식이 화려해지는데 이는 낸시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갖은 마약으로 점점 중독되어 정신이 불안정한 시드를 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핑크스타일

Figure 1은 클럽에서 섹스 피스톨즈가 공연을 하는 장면으로 시드는 블랙 레더 재킷, 디스트로이드된 하얀색 이너(inner)와 라이트 블루 스키니 진을 착용하고 있다. 이너의 찢어진 단은 로 엣지(raw edge)로 정리되지 않아 컬 업(curl-up)이 되어있다. 찢어진 이너의 가슴에는 모노크롬(monochrome)의 프린팅(printing)과 그래피티(graffiti)가 새겨져 있어 핑크의 대표적인 'Do it Yourself' 패션스타일로 피폐된 현실과 해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액세서리는 군 특수부대용 선글라스, 초커 목걸이, 삼색의 스포츠용 아대와 스티드가 장식된 블랙의 레더 브레이슬릿(bracelet), 초커 그리고 벨트를 착용하였다.

Figure 2는 섹스피스톨즈가 1977년 '퀸 엘리자베스' 호에서의 공연했던 것을 재현한 장면으로 공연 전 시드의 모습이다. 다양한 배지가 장식된 블랙 레더 재킷, 블랙 슬로건 티셔츠, 블랙 스키니 진을 착용하고 있다. 극 중 후반 섹스 피스톨즈가 해체한 후에도 음악적으로 복귀하기를 바랐던 시드는 지속된 마약 복용으로 정상적인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끝끝내 음악을 하고자 했던 그의 록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훼손되지 않은 이너 위에 'Vive le Rock(록 만세)'라는 상징적 슬로건으로서 핑크 록에 대한 시드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Figure 3은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극복한 록 헤드를 만나 조안을 구하러 간 장면이다. 그는 카우보이모자, 보안관 배지, 권총, 건 홀스터(gun holster), 목에 두른 스카프 등과 같은 제도와 규율을 상징하는 보안관이나 경찰관의 아이템들을 채택함과 동시에 우스꽝스럽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통해 기존의 권력체제와 전통성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블랙의 레더 재킷과 스키니 진에 공산주의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그려진 붉은색의 티셔츠를 착용한 의상은 실제로 시드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문양의 티셔츠를 입고 다닌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하켄크로이츠



Figure 1. Monochrome T-shirt
(Fellner, 2010;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2. Slogan T-shirts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3. Sheriff Look & Sickle and Hammer T-shirts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4. Leopard Fur Vest
(DVD captured by authors)

문양은 유럽에서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다. 감독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하켄크로이츠 문양 대신 낫과 망치 문양을 택하여 영화 속에서 완곡히 표현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기성세대로 하여금 거부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게 하는 펑크의 반항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Figure 4는 블랙 레더 재킷에 인조 레오파드 퍼(leopard fur)로 만들어진 테일러드 칼라(tailored collar)의 베스트(vest)와 블루 스킨니 진을 이질적으로 매칭하여 전통과 형식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레오파드는 조잡하고 저급한 문화를 상징하였으며 펑크족들은 스타일로 레오파드를 채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여성만의 전유물이었던 레오파드 무늬의 퍼 베스트의 착용은

의복으로써 성의 경계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는 블랙 레더 재킷과 훼손되고 지저분한 티셔츠, 디스트로이드 된 스킨니 진, 첼시 부츠를 착용하고 있다. 블랙 레더 재킷의 장식은 배지와 에플트 위 스티드로만 장식되어 있다. 액세서리로는 스티드와 리벳이 장식된 블랙 레더 초커와 팔찌, 스포츠용 아대, 스티드가 장식되어 수갑 형태의 장식이 고정되어있는 두터운 블랙 레더 벨트를 믹스매치하여 하이패션에 대한 반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은 극 중후반의 시드 모습으로 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리벳과 스티드와 같은 디테일이 강조된 블랙 레더 재킷에 블랙 스킨니 진과 워커를 매치하고 화이트의 레이스 본디지(bondage) 장식을 더했다. 어울리지 않는 레이스 본디지의 매칭은 스타일링의 부조화



Figure 5. Skinny Jean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6. Black Pants
(DVD captured by authors)

로 성의 모호성과 외설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시드의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체형을 드러나게 하거나 레이스, 레오파드 피부와 같은 소재 및 화려한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여 여성성과 블랙 레더 재킷, 워커부츠, 군 특수부대 안경 등과 같은 남성성이 공존하는 모호한 성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성에 대한 구분과 인식에서 벗어나 성의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펑크의 반패션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2) 낸시의 영화의상과 스타일링

낸시는 시드와 달리 영화 속에서 펑크스타일과 페티시가 가미된 펑크스타일, 그 외에 하위 문화스타일로서 페티시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실제 매춘부였으며 영화 속에서 페티시스타일로서 매춘부를 상징하고 있다. 펑크스타일로는 시드와 마찬가지로 블랙 레더 재킷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레이스로 된 코르셋이나 메시(mesh) 소재의 이너와 광택 있는 블랙 레더 원피스를 함께 착용하여 페티시가 가미된 펑크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다양한 하위문화적 스타일의 연출은 삶의 부정과 파괴, 폭력적으로 반발하는 펑크적 삶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극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1) 펑크스타일

당시 유행하던 마라 포세트 메이저의 헤어스타일과 평범한 캐주얼 스타일을 입던 낸시는 시드를 만난 이후 블랙 레더 재킷을 주로 착용하여 펑크스타일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블랙 레더 재킷의 착용은 시드와 커플인 경우가 대다수로 스커트에 스타킹을 주로 매치하였고 스커트의 장식

은 매우 화려하다. 시드를 상징하는 블랙 레더 재킷을 착용한 낸시의 모습은 시드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Figure 7은 시드와 함께 약물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한 장면으로 스티드나 리벳 장식이 화려한 블랙 레더 재킷을 입고 있다. 그녀의 블랙 레더 재킷의 장식은 시드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스티드, 리벳, 체인, 배지 등으로 장식이 강조되었고 마침내는 그와 비슷한 장식의 재킷 혹은 그의 티셔츠를 입거나 시드가 했던 초커목걸이나 브레이슬릿의 착용으로 시드를 만남과 동시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동화되었음을 표현함으로써 펑크 정신세계에 함몰해감을 보여주고 있다.

섹스 피스톨즈의 연습실에 찾아간 낸시는 롱 테일러드 블랙 레더 재킷, 블랙 미니 드레스, 스타킹을 신었고 리벳장식의 초커를 하였으며 롱 재킷의 양쪽 팔에 'CHAOS'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붉은색 완장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나치즘을 연상케 하여 거부감을 일으키고 카오스라는 문구는 혼돈을 야기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가 담겨있다(Figure 8).

Figure 9는 시드와 마약을 하는 장면의 낸시의 모습으로 낸시의 레오파드 퍼 베스트의 커플룩 연출은 서로 동화되어가는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블랙 레더 재킷 안에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레이스 달린 코르셋이나 메시(mesh) 소재의 이너 또는 광택 있는 블랙 레더 원피스 등을 착용하여 페티시가 가미된 펑크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페티시스타일의 아이템은 그가 매춘부임을 암시하며 불쾌감과 혐오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로 펑크적 어두움을 상징



Figure 7. Black Leather Jacket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8. Long Leather Jacket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9. Leopard Fur Vest
(DVD captured by authors)

하고 있다(Figure 10).

블랙 레더로 된 미니스커트를 함께 착용하여 메시 소재의 스타킹이 도드라지게 하였으며 스커트는 스티드, 리벳, 체인 등으로 점점 더 화려해지고 때론 프린지를 달아 히피적 감각을 더하거나 Figure 11과 같이 골드 컬러의 광택 있는 스커트를 입기도 하였다. 낸시의 블랙 레더 재킷이 무난한 경우 매치되는 스커트는 미래적 요소의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디테일이 화려하게 가미되었다. 블랙 레더 재킷이 시드를 상징했다면 스커트는 낸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의 매칭이나 과도한 장식은 마약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녀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슈즈는 극 초반에는 굽이 낮은 블랙 펌프스(pumps)를 신

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굽의 블랙 펌프스, 골드 부티(bootie)를 신었으며 항상 블랙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여성에게 팬츠가 대중화되고 유니섹스 패션이 성행되었던 시대에 반하여 미니스커트와 같이 비치는 블랙 스타킹, 구두를 택하여 선정적이고 불량함으로 무장한 반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액세서리로는 시드보다 더 사이즈가 큰 벨트에 리벳이나 스티드가 장식되었다. 리벳이 박힌 초커목걸이, 권총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볼드한 체인 목걸이, 큰 큐빅이 달린 귀걸이, 올이 나간 스타킹, 반 장갑, 베레모 등을 착용하여 무취향적이고 무질서적인 그의 스타일은 상업화된 기존의 패션에 대한 키치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

(2) 페티시스타일



Figure 10. Black Leather Skirt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11. Gold Skirt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12. Fetish Style 1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13. Fetish Style 2
(DVD captured by authors)

영화 속 낸시의 페티시스타일은 전형적인 매춘부 스타일로 낸시가 매춘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죽으로 된 바디슈트(body suit), 블랙 롱 글러브(gloves), 양손에 여러 개의 체인 브레이슬릿, 블랙 레더에 사각뿔의 스타드와 아이릿, 체인으로 장식된 초커(Figure 12),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금속 조임 장식이 달린 코르셋, 가터벨트, 사이하이부츠(tight-high boots), 구멍 난 망사 스타킹을 매치하여(Figure 13) 몸매를 드러내는 X형 실루엣으로 원초적 본능을 서슴없이 노출하고 있다. 페티시즘에서 맨발과 맨손은 나체를 상징하며 맨발과 맨손에 롱부츠와 글러브를 끼는 행위는 성 행위를 암시하여(Steele, 1997) 감독은 사회적 질서와 경건성을 페티시즘이라는 불건전함과 어둠으로 억압적 사회제도에 대항하는 젊은 세대들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낸시는 펑크스타일을 착장했을 때도 대체로

장갑을 끼고 있어 감독은 그가 페티시즘에 속해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펑크적 웨딩 스타일(punky wedding style)

성의 구분, 전통 결혼식이나 관습에 대한 반격은 그의 퍼포먼스에서도 나타난다. Figure 14에서 시드는 화이트 테일러드 재킷을 이너 없이 착용하고 블랙 스킨 팬츠, 자물쇠 목걸이, 스포츠용 아대, 수갑 형태의 장식이 달린 벨트를 착용하여 안티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관객인 기성세대가 입은 정통 테일러드 슈트와 대비되고 있어 형식, 규율과 규제의 파괴로 그의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시드가 블랙 스킨 팬츠에 레이스 본디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웨딩 시 여성이 착용하는 본디지는 처녀성을 남성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순정과 남녀 간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는 성의 경계를 허물어 남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결혼에



Figure 14. Tailored Suit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15. White Wedding Dresses 1
(DVD captured by authors)



Figure 16. White Suit and Wedding Dress
(kor.mainstreetartisans.com)



Figure 17. White Wedding Dresses 2
(DVD captured by authors)

대한 전통적인 풍속과 관례, 혼인에 대한 영원성의 배제를 상징하고 있다. 공연 후 총을 꺼내 관객과 낸시에게 총을 쏘는 퍼포먼스는 스타일과 함께 핑크적 허무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시드가 공연을 할 때 낸시는 핑크적인 화이트 드레스를 입어 정신적 결혼으로서 그들 간의 결속과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낸시의 시폰 소재에 레이스 장식을 한 프린세스라인의 화이트 드레스는 선정적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슬리브에 올이 풀어헤쳐지고 찢어진 슬래시는 순수와는 대별되는 파괴적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다. 목 전체를 감싸는 사각뿔의 스티드, 아일랜드와 체인으로 장식된 초커 목걸이, 큰 큐빅이 줄줄이 달린 볼드한 귀걸이를 착용하여 조잡하고 난잡한 스타일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은 미치광이와 같은 존재감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신을 부정함으로써 미래 희망에 대한 좌절, 현실도피적인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15).

영원할 것 같았던 시드와 낸시의 사랑을 핑크적 웨딩스타일로 드러낸 스냅 샷인 Figure 16은 낸시의 죽음으로 끝난다. 낸시의 죽음 이후 환영 속 낸시의 모습을 공연 시 입었던 핑크 감각의 웨딩드레스와는 대조되는 나뭇잎과 꽃으로 보이는 레이스 초커 목걸이와 살몬빛 드레스(Figure 17)는 마치 죽음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간 낸시를 상징한다. 시드와 키스하는 장면의 연출은 실제 낸시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다한 시드의 삶을 예고하고 있으며 복식의 변형과 파괴를 시도하지 않은 의상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

Table 1. The Symbolic Meanings of Sid and Nancy's Costume.

Character	Style Categorization	Fashion Item	Symbolic Meaning
Sid	Punk style	Black leather jacket, badge, rivet and stud	Symbols of unstable Sid, anarchism, denying traditional systems
		Destroyed monochrome T-shirts	Devastated reality and disruptive conditions
		'vive le rock' slogan T-shirts	Sid's passion and love for music
		Sheriff look & sickle and hammer T-shirts	Mockery of the existing system and intentional offending, aggression
		Leopard fur vest	Destroy and deny the gender's boundaries and the traditional garment system
		Skinny pants	Ambiguous the gender's boundaries and the desire for complete freedom of gender, tasteless disposition
		Lace bondage trimming	
		Fancy studded accessories	
		Chelsea boots, worker boots	
Nancy	Punk style	Black leather jacket	Spiritual assimilation with Sid, anarchism, denying existing systems
		Tailored long jacket with Black leather and arm band said 'CHAOS'	The generation of displeasure through the association of Nazism and their desire to cause chaos
		Leopard fur vest	Love with Sid, punky darkness
	Fancy black leather skirt & Gold Skirt	Symbols of unstable Nancy	
	Fetish style	Black leather body suit, corset with PVC, garter belt, destroyed net stocking, long gloves, chain bracelet, studded black leather choker and chain fring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younger generation against the repressive social system through fetishism.
Sid & Nancy	Punky wedding style	- White chiffon dress, studded black leather choker and chain fringe, bold cubic zirconia earrings, black half gloves, crown of thorns - White tailored jacket, black leather belt, sport wristband, studded black leather bracelets, lace bondage decoration, lack necklace, chelsea boots	Spiritual marriage, nihilism, destructive evil that is distinct from pure, denial of God
		White lace dress, lace choker, bold cubic zirconia earrings, lace half gloves	A symbol of Nancy who returned to nature through death.

V. 결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형성된 하위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외받았던 청년 노동자 계층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그

들만의 문화를 이루어왔으며 스타일로서 그들의 취향을 표출하였다. 1970년대 꽃을 피운 하위문화 중 하나로 암울한 영국의 정세를 비판하고 조롱한 펑크는 기성세대 및 기성사회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지닌 청년들의 문화로 그들의 동질감에서 비롯된 스타일은 특정한 집단을 규정하는 수단

이 되었으며 특정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전유물이 되었다. 스트리트에 머물러있던 펑크스타일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말콤 맥라렌에 의해 섹스 피스톨즈 밴드 멤버에게 입혀졌으며 밴드 내 베이스 맡았던 시드와 그의 연인 낸시의 패션스타일은 펑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이 되어 젊은 세대들을 열광하게 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하위문화적 감성을 지닌 알렉스 콕스 감독에 의해 영화 <시드와 낸시(1986)>가 탄생하게 되었다. 감독은 사건들의 재현을 통해 섹스 피스톨즈를 오마주하고 그 시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날날이 펑크적으로 드러내었으며 1970년대의 다양한 문화와 스타일들의 다원주의적 시대상을 주인공 시드와 낸시를 통해 영화 속에 담아내었다.

이에 영화 <시드와 낸시(1986)>의 주인공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영화의상 스타일과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본 결과 감독은 기존의 복식이나 원리에 반하는 반패션으로서 하위문화의 속성과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상징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펑크족의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반체제, 성의 자유 등과 같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그려내고 있다.

시드의 블랙 레더 재킷은 베지와 스톨드, 리벳 등의 장식이 화려해지면서 점점 마약에 빠져들어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시드를 상징하고 있다. 그가 입을 이너는 켄 업 되고 지저분하거나 디스트로이드 되어있으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와 인식을 내포하는 문양을 활용하여 일부러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상징적인 프린팅인 나치문양은 유럽에선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문양으로 극 속에선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대체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Vive le Rock' 처럼 상징적인 슬로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기본체제 및 가치에 대한 반발 등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펑크스타일이었다.

영화 속 낸시는 펑크스타일과 페티시스타일이 가미된 펑크스타일과 페티시스타일을 착용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길은 화장을 즐겨했으며 머리는 당시 주류사회에서 유행했던 층이 난 단발에 펴를 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낸시는 시드를 만난 이후 펑크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으며 커플처럼 옷을 맞춰 입고 다녔다. 이는 시드와 낸시의 결속력이 강해짐과 더불어 점점 펑크적 삶을 살게 되는 낸시를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매춘부 일을 하고 있던 낸시는 플라스틱으로 된 코르셋, 장갑, 부츠 등을 통해 이전보다 완전한 페티시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올랐던 페티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낸시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회가 감추거나 부정하고 싶어 하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그것을 숨기기보단 본능에 충실하여 스타일을 통해 드러내는 모습은 낸시가 펑크와 더불어 페티시 그 자체라는 함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드와 낸시가 함께 한 펑크적 웨딩스타일은 성의 경계를 허물어 남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풍속과 관례, 혼인에 대한 영원성의 배제를 상징하고 있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은 미치광이와 같은 존재감으로 인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신을 부정함으로써 미래와 희망에 대한 좌절, 현실도피적인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영화 <시드와 낸시(1986)>에 나타난 펑크스타일과 함께 브리콜라주(bricolage)된 페티시스타일은 한 시대의 문화적 코드로 존재하며 그들의 행동양식이 반영된 상징이자 가치관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위문화적 감성과 취향,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스타일이 영화 속 미장센으로서 영화의 장르와 성격을 규정하는 영화의 한 요소로 존재하며 감독이 의도한 극중 캐릭터와 극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확장하는데 일조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영화 속 시드와 낸시에 나타난 펑크를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와 그 스타일만을 분석하였음을 그 한계점으로 제시하며 차후에는 섹스 피스톨즈의 밴드와 그 이외 인물들의 패션스타일과 삶을 보다 면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ex Cox. (2009).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s://edward2r.tistory.com/entry/%EC%95%8C%EB%A0%89%EC%8A%A4-%EC%BD%95%EC%8A%A4-Alex-Cox>
- Alex Cox. (n.d.). *Cine21*.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www.cine21.com/db/person/info/?person_id=1664
- Buxbaum, G. (200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G. Keum, H. Nam, H. Park, & J. Huh, Trans). Seoul: Artculture.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Choi, Y. (2016). M+기획...영화와 의상②: 의상감독들에게 물었다(인터뷰) [M+planning...movie and costume②: I

- asked costume directors (interview)].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February 7, 2021, from <https://www.mk.co.kr>
- Chung, H., & Chung, H. (1997). A study of feminism expressed in post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5, 231–252.
- Chung, H., & Yang, S. (1999). British street style as an original text of subcultur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Costume and Fashion*, 42, 137–162.
- Costume designer. (n.d.). ScreenSkills. Retrieved February 7, 2021, from <https://www.screenskills.com/careers/job-profiles/film-and-tv-drama/craft/costume-designer>
- David, C., & Landis, D. (2014). Costume design: Defining character: Instructional guide. [PDF file]. Retrieved February 7, 2021, from <https://www.oscars.org/sites/oscars/files/teachersguide-costumedesign-2015.pdf>
- Fellner, E. (Producer), & Cox, A. (Director). (1986). *Sid and Nancy* [DVD]. Hollywood, CA: The Samuel Goldwyn Company.
- Fellner, E. (Producer), & Cox, A. (Director). (1986). *Sid and Nancy* [Motion Picture]. UK: Zenith Productions.
- Fellner, E. (Producer), & Cox, A. (Director). (2010). *Sid and Nancy* [DVD]. Seoul: Kino Film, The New Media Company.
- Hwang, S. (2001). A study on the punk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2(1), 251–258.
- Im, J. (n.d.). “실업자들에게 사랑 노래 따위는 필요 없다!” – 섹스 피스톨즈 [“The unemployed don’t need love songs!”–Sex Pistols]. *Channel Yes24*.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ch.yes24.com>
- Kim, H., & Lee, S. (2009). A study on the costume and the inner symbolic meaning expressed in the Stanley Kubrick’s film <Lolita (1962)>.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3(1), 152–166.
- Kim, H., & Park, J. (2008). A study on the costume expressed in the American new cinema – Focused on <Easy Rider(1969)>-.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2), 28–41.
- Kim, J. (2015). *A study on the sub-culture style in menswear coll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Choi, H., Kim, Y., Ha, J., & Choi, S.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Seoul: Gyomunsa.
- Kim, S. (2002).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and influence of punk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139–164.
- Kim, T. (2020, September 26). 섹스 피스톨즈, 조롱과 독설... 저항과 무정부의 음악 [Sex Pistols, mockery and vitriol... The music of resistance and anarchy]. *Monthly Chosun*.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s://monthly.chosun.com>
- Korean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2006). *A dictionary of literary critical terms*. Seoul: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Kwon, H. (2015). Aesthetic observation of punk-fashion revealed after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1), 69–89.
- Lee, E. (1997). A study for aesthetic meaning in street style. *Journal of Natural Science*, 9(1), 113–129.
- Lee, H., Lee, Y., Lee, Y., & Jin, S. (2002). *패션문화* [Fashion culture]. Seoul: Yehaksa
- Lee, K., Kim, Y., Sin, E., Lee, J., & Jung, M. (2006). *복식의 아이템* [Item of costume]. Seoul: Gyeongchunsa
- Lim, E., & Kim, M. (2003). A study on the subcultural style in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 Costume and Fashion*, 53(3), 13–31.
- Park, J. (2010). *Subculture style presented 21st century fashion trend – Focusing on hippie and punk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Sid and Nancy Awards. (n.d.).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s://www.imdb.com/title/tt0091954/awards>
- Starr, L., & Waterman, C. (2015). *미국 대중음악: 민스트럴시부터 힙합까지, 200년의 연대기* [American popular music: From Minstrelsy to hip-hop, 200 years of chronology]. (Y. Kim, & I. Cho, Trans.). Seoul: Hanwool.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Steele, V. (1997).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Suit and Wedding Dress. (2019). Retrieved January 24, 2021, from <https://kor.mainstreetartisans.com/>

- 4126882-sid-and-nancy-biography-of-the-most-sandalous-couple-of-the-70s
- Um, S. (1995). A study on the popular music and fashion of youthful subculture. *Journal of the Korea Costume and Fashion*, 26, 101-121.
- Tucker, A., & Kingswell, T. (2003). 패션의 유희 [A crash course in fashion]. (E. Kim, Trans.). Seoul: Yedam.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Yang, M. (2003). *Study on the style of subcultural clothing: From 1930s to 199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im, E. (2003). Subcultural style in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high fashion -The case of punk l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2), 71-85.

Received (January 26, 2021)

Revised (February 1, 2021)

Accepted (February 17, 2021)